

전염병 위협에 마주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고
엠마 캠벨 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WHO)는 8월 초,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엠폭스(MPOX·원숭이두창)가 급증하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확산함에 따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했다. 사례가 증가한 것은 2년전부터였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상황이 악화됐다.

국경없는의사회는 6월 중순부터 콩고민주공화국 내 엠폭스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구호팀을 배치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지금까지 콩고민주공화국 전역에서 지역 보건 당국을 지원해 14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엠폭스의 일반적인 증상은 발진, 병변, 통증으로, 증상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으나 치료제는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한 달 이내에 회복되지만 일부는 극심한 통증을 겪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올해 콩고민주공화국 내 엠폭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500명을 훨씬 넘어섰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듯이, 전염병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엠폭스 감염은 현재 아프리카 국가 외에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추세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구호 단체로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엠폭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참여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현재 가장 위협에 처한 인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려면 보건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감시, 임상검사 역량 강화, 진단 및 치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예방접종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가 여전히 극도로 제한적이며 백신 부족 문제로 인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엠폭스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계획의 범위를 크게 제한시켰다. 백신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엠폭스에 특히 취약한 15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수천 명이 무방비 상태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존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사용 승인된 두 가지 백신에 대해 제조업체가 생산량을 확대하고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목록(EUL)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백신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엠폭스가 발병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현재 유행이 진행 중인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 백신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양을 기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엠폭스가 유행 중인 국가에서 백신을 부담 가능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중저소득국가 대상 가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격 책정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엠폭스 유행 상황이 계속해서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현재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 각국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자는 현재 엠폭스 백신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에는 백신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국경없는의사회 팀이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과 위협에 처한 인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여야 공통공약, '하지부지·용두사미'와 작별하라



기자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여야가 공통 공약을 추진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말이다. 여야에 잠시 찾아온 '데탕트' 분위기에 주로 나오는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에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도 어김없이 합의 사항으로 나왔다.

정치권에선 3시간 정도 소요된 여야 대표회담에선 실질적인 민생을 위한 합의보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이견차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여야 공통 공약 기구 설치에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치트키' 같은 느낌마저 든다. 여야의 공통 공약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일의 절차이

지, 공통 공약을 따로 논의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대선 이후 주로 야당의 요구로 여야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제안이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초기에는 추진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 공통 공약 추진은 힘을 잃은 이수가 됐다.

그럼에도 말뿐인 공통 공약 추진기구에 힘을 실으려면, 정책위의장 등 여야의 정책 담당자들이 기구에 포함돼야 하고 이들의 의회를 정례화해서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니 민감한 사안이 많지 않겠지만, 비공개 회의를 하더라도 주요 내용은 백브리핑의 형태로 발표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공통 공약 중에서도 우선 순위

를 정해 이 공약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 중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상임위의 몫으로 남겨두고 공통 공약 중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 당시 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공약에 더해 건축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담페이크 성범죄,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최근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 여야의 공통 법안도 논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선이 끝난지 2년 반, 총선이 끝난지 5개월이다. 이제 대형 선거는 2년 후에나 있다. 정권이 바뀌고, 새 국회가 출범하고 한 바탕 싸우느라 시끄러웠으니 이제 정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 아니겠는가.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4일 (금 8월 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녀에게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되지 않도록, 48년생 잘살기 위해서는 노력이다. 그 원인이 있게 마련. 60년생 직장승진의 기쁨이 있다. 72년생 실력의 확인이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84년생 3대 가족이 화목하니 감사한 삶을.



37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할 일을 다 한 듯. 49년생 누구나 근심·걱정은 있다. 61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73년생 남의 불행은 가시거리 삼시도 않도록, 85년생 도로에서 차량과 사람 또한 서로 조심해야.



38년생 보통은 돈에 대해 집착할 수밖에 없다. 50년생 이사는 자칫 불운을 부를 수 있으니 계약유의. 62년생 삶의 전진인 조상제사는 필수. 74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굳센 마음이 필요. 86년생 봄이 다가오면 푸름과 꽃이 핀다.



39년생 자연계의 질서는 순환에 있으니 건강도 마찬가지. 51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3년생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부딪쳐서 성과를 내자. 75년생 소금 장사 나기는데 비 오는 격. 87년생 향수에 젖지 마라.



40년생 세상일이 뜻대로 잘되는 일만 있지 않다. 52년생 사슴을 쫓는 사람은 토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64년생 운이 없다는 말은 자기변명. 76년생 실재가 겹치면 새롭게 진단해서 방법을 찾자. 88년생 3시부터 바르게 운전.



41년생 뉴스의 천금보다 품은 내 돈이 소중하게. 53년생 생활에서 쓰는 숫자에도 행운과 불운이 따른다. 65년생 모난 돌이 정 많은 법이니 조용히. 77년생 시간과 공간은 결과로 점철된다. 89년생 맑은 하늘 구름을 바라보며 방 청소를.



42년생 축복자불고도 逐鹿者不顧免魚으로 도리를 버리거나 위험을 돌보지 않는 경우를 말함. 54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66년생 출렁이는 날이니 말조심. 78년생 세상일에 도전은 해봐라. 90년생 기계 만질 때 순서대로 천천히.



43년생 맑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55년생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 공들였던 일이 무산될 위기. 67년생 소문난 잔치에 가보니 먹은 것도 많더라. 79년생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연락을 해보는 것도. 91년생 짧은 만남이 긴해짐이다.



44년생 실력 있는 사람과의 합작이 되어 이득이 따른다. 56년생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면 부딪쳐 성과를 내자. 68년생 직장에서 나의 고생을 알아준다. 80년생 최선을 다했으니 기본 소식이 올 것이다. 92년생 오랜 세월은 기다리는 법이다.



45년생 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 게 없다. 57년생 과한 것보다 다소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69년생 가까이 있다고 소홀히 대하지 마라. 81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기본기준에 맞추자. 93년생 오늘은 이름이 빛나는 날.



46년생 돼지우리를 만들고 돼지를 사러 가라. 58년생 추위가 닥쳐오니 준비를 해라. 70년생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로 환기하자. 82년생 운을 바꾸는 삶의 질은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94년생 세월이 가도 건강한 아름다움에 부러움을 산다.



47년생 남의 싸움은 말리라고 했는데. 59년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나 남을 미워 마라. 71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83년생 우는 아이는 우선 달래야. 95년생 반려동물들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대 학대하지 마라.



김상회의四季 신비한 돌과 월령도

장량의 황석공에 이어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도 마음속 소원을 비는 돌이 있다. 이름하여 '소원석'이다. 석(石)을 얻는 과정이 장량처럼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으나 필자에게 비책의 월령도를 전해주시는 노스님께서 지리산 깊은 계곡에서 수행하고 하산하기 전에 꿈에 본 돌과 모양이 같아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끼고 품에 안고 내려오신 돌이다. 필자와 인연의 세월 동안 신비의 월령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부처님 모신 아랫단 좌측에 놓아두었다. 신도분들이 예불이나 기도 발원이 끝나면 그 돌에 물을 세 번 부으면서 마음속 발원을 되뇌게 했다.

스님은 월령도로 감명을 했고 그간 인연을 맺은 분들은 한결같이 스님의 통탄한 직관과 예지력에 감탄은 기본이다. 보기에는 체구도 자그마하고 그저 촌로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가운데 쏟아내는 말씀은 침으로 환부를 찌르듯 날카롭고 분명했다. 나이 많은 노인네가 하는 말이어도 얼마 뒤면 어김없이 할레벌떡 뛰어 들어오며 아이고 할아버지! 방편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도 스님은 늘 같은 허허 미소 띤 표정으로, 기도 시작으로 소원석에 물, 세 번을 부으며 발원을 하라고 했다.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돌에다가 소원 한 번 빌었다고 만사가 이뤄지겠는가라는 설마 하는 마음, "에게, 뭐 그런 일이 있을라고!" 하는 마음은 여우 같은 의심일 뿐이다. 장량도 웬 노인네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몇 번을 골탕 먹이듯이 했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노인의 요구를 따랐다. 그 결과 사람됨을 알아본 노인은 한 고조 유방으로부터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서 벌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장자방(장량)이다"라는 극찬을 받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기억하는 분은 월령도와 함께하신 노스님이 그리워지는 날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7	4	3		
8			4					
	7					8	5	
							5	
		6		7				
	6							
3	8						1	
			8					4
5	4	2		6				

	2	6		9	7			1
	9			1	3			
								4
	7		3					
					2			5
	1							
			6	3				7
3			2	4		5	1	

8	6	8	9	4	1	2	7	9
7	4	2	8	8	9	9	6	1
9	1	9	2	6	7	4	8	8
4	2	7	1	9	8	8	9	6
6	8	8	2	9	9	1	4	7
1	9	9	7	8	6	8	2	4
9	8	1	6	9	8	4	7	2
2	9	6	9	7	4	1	8	8
8	7	4	8	1	2	6	9	9

9	1	9	6	7	2	4	8	8
2	4	8	1	8	9	9	4	6
6	8	7	8	9	2	9	1	
8	9	9	2	4	8	1	4	7
4	2	6	7	8	1	8	9	9
8	7	1	9	9	8	6	4	2
4	6	4	9	2	9	1	8	8
9	9	2	8	1	8	7	6	4
1	8	8	4	6	7	9	2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61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